

# 두산인프라코어 합격 자기소개서

직무 : 해외영업

입사 지원서 및 Essay 작성 시 본인의 어학역량(해외체류경험, 공인어학성적, 어학활용 경험 등)을 반영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지원하는 회사와 분야(직무)에 대한 지원동기를 자유롭게 기술 하세요. (50 자 이상 400 자 이내 입력)

[남미시장 점유를 위한 교두보]

두산 인프라코어의 브라질 향 수출증가에 해외영업사원으로서 대응하고자 지원했습니다. 현재 유럽 및 북미는 주택, 도심지의 개보수 건설에 필요한 소형 건축장비 중심시장인 반면 브라질, 아르헨티나 등 남미 개발도상국은 항만, 도로 등의 사회 간접자본이 구축 중이기에 중대형 장비 시장의 신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역량을 쌓았습니다. 첫 번째, 포르투갈어를 유창하게 구사합니다. 브라질 인턴 근무, 동국제강에 포르투갈어 강의경력 및 주요방송사 3사 영상번역 경력이 이를 뒷받침합니다. 두 번째, 해외영업에 필수적인 시장조사 경력을 쌓았습니다. 마케팅 리서치 업체에서 브라질 시장에서의 전자제품 출시와 현지반응, 정책 변화 등을 보고하며 현지시장파악에 필수요소들을 배웠고 이를 남미시장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. 두산의 해외영업사원으로서 남미시장 점유율 향상 책임지겠습니다.

본인의 장/단점과 입사 후 장점은 어떻게 활용되고, 단점은 어떻게 보완 할 수 있겠는지를 기술하세요. (50 자 이상 400 자 이내)

[체계성과 협업 사이]

저의 장점은 체계적인 성격입니다. 이는 해외영업사원으로서 영업이익 신장을 목표로 영업계획부터 선적까지의 긴 과정을 수행하는 해외영업사원에게 필수적인 자질입니다. 이를 통해 업무수행에 주어진 시간을 가늠하고 중간에 발생하는 시관 통과 지연 같은 돌발상황까지 예상해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반면 단점은 자기주장이 강한 점입니다. 회사근무 및 강사근무 전까지는 통번역 프리랜서로 활동해 협업보다는 혼자 업무를 처리하는데 익숙해 이런 단점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. 하지만 두곳의 회사 근무 및 강사경력을 쌓으며 의견충돌이 있었고 이후로 동료와 의견을 조율하며 업무를 처리하는 법을 익혔습니다. 두산 입사

후에도 생산부서 및 유통업체와의 협업이 중시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 동료의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근무하겠습니다.

**본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도전적이었거나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기술하세요. (예: 단체활동, 아르바이트, 어학연수, 리더 경험등 / 50 자 이상 800 자 이내)**

[뜨거운 열정을 담은 밴드, 라퍼커션]

라퍼커션은 제가 잠시 활동을 중단한 삼바밴드입니다. 인지도가 낮은 브라질 음악을 연주하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지만 문화행사 참가 및 무료 유아 음악교육사업 등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주로 업무적인 관계로 구성된 그룹에 속해있던 저에게 열정으로 이어진 그룹에 속하고 타인과 협력하는 것은 큰 도전이었습니다. 멤버이자 통역사로서 공연, 브라질 뮤지션 초대 및 통역, 2014 년 브라질 삼바카니발 참가를 위한 스폰서 계획안에 참가하는 등 많은 일을 했으나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합주실 공사에 참가한 것입니다.

[나의 피와 땀이 서린 합주실]



구성원 증가로 합주실 이전 및 리모델링을 하게 됐으나 리모델링 자금이 부족했습니다. 밴드 멤버들이 일부분 시공을 하는 것으로 시공단가를 낮추기로 합의하여 2012 년 6 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. 한여름에 건축자재를 옮기면서 땀을 흘리고 방음판을 설치하다 손을 다치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공사마감시한에 맞추기 위해 퇴근 후, 밤 11 시까지 벽에 페인트를 칠하기도 했습니다. 육체적으로 피곤했고 다른 멤버들이 참가하지 않는 날은 시간낭비라는 생각도 했습니다.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설치한 전등에 불이 들어오고 점차 완성되어가는 합주실을 봤을 때 느낀 성취감과 밴드에 대한 자부심으로 보상이 되었습니다. 합주실 이전으로 보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연주할 수 있게 됐고 합주실 대여로 운영비 절감과 인지도 상승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.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성과보다 나라는 개체로서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집단에 소속되어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. 두산 인프라코어에서도 사원으로서 이러한 자부심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.